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 공동체

부산 물만골 공동체

글 · 조철민 free@kdemo.or.kr

정겨운 이름, 물만골

원래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마을은 고유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일제와 군사정권, 그리고 숨 가쁜 산업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을의 이름은 딱딱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해왔다. 물만골은 금련산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많은 곳이라 하여 물만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김춘수의 시구절처럼 그 곳에 터 잡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은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더불어 이 마을이 터 잡고 있는 금련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다. 부산시청 인근의 도심과 물만골 공동체는 좁은 도로로 이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마을이 자리한 형상이 마치 금련산의 자궁子宮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인 듯 '외부세계'와는 다른 느낌과 아늑함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생명체의 모세혈관처럼 이어지고 얽혀 있는 작은 골목길을 통해 흐르고 있었다.

마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위원장은 금련산의 금(金)자는 외국 도시의 이름 앞에 붙는 'San' 처럼 특별한, 소중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덧붙인다. 마을의 자부심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공동체들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의 활동들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물만골 공동체는 사람들이 '찾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는' 공동체이다. 마을의 삶의 모습과 역사 자체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활동'이다. 좀 더 인간적인 마을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둘러보고 한 조각의 통찰을, 혹은 용기를 얻어 가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온다고 한다.

1번가의 기적

물만골 마을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철거를 앞둔 달동네 사람들의 애환과 다양한 욕망과 삶들이



물만골 주민대동제



엮혀서 빚어내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윤제균 감독의 '번가의 기적' (2007)이라는 영화가 이곳에서 만들어 졌다. 영화 속 재개발 공사업체의 앞잡이로 등장하는 필제(임창정 분)는 '1 곱하기 1은 평생 1이다'라며 이 동네가 재개발이라는 근사한 '곱하기'를 해서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 역시 삭막한 도시의 생존경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사람이지만, 한 번의 개발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증식하는 '곱하기'의 법칙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곱하기'의 법칙만을 생각하며 살다보니, 너무나 자명한 한 가지를 잊고 살아 왔다.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것을. 금련산 주변의 부산 도심이 대기업 자본에 의해 '곱하기'의 개발이 계속 되는 동안, 금련산의 자궁 안에서는 느리지만 사람이 중심에 있는 '더하기'의 마을 만들기가 그 성실한 결

음을 계속해 왔다.

물만골 마을은 원래 물과 숲으로 형성된 구릉지였는데, 1960년대 동구 초량동 일대의 재개발로 인해 무허가 판자촌에 살던 주민들은 부산 동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 왔다. 그 중 이주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만골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이후 군사 시설 보호, 지역 재개발을 이유로 여러 차례 강제철거의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강한 의지로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연대다. 이 마을의 자치조직은 처음부터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모두가 모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함께 일을 풀어나갔다.

그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마을의 대표인 위원장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공

동체의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이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던 차에, IMF를 만나게 된다. ‘곱하기’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위기를 맞을 때, 역설적이게도 ‘더하기’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곳은 기회를 맞게 된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내놓고, 이것이 부산시에 의해 공개매각에 부쳐진 것이다. 물만골 공동체에서는 주민총회가 열렸고 땅을 공동매입함으로써 떳떳하게 살아보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0명의 주민이 공동매입을 결정했다.



물만골 생태마을 조성사업 착수식

그리고 매입한 땅은 사유지로 구획을 나누지 않고, 모든 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공동소유로 설정했다.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법원으로부터 발행된 날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이후 3차례의 꾸준한 공동매입을 통해 90% 가량의 땅이 주민들의 공동소유가 됐다. 이 모든 과정이 ‘더하기’의 원리, 즉 모두가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된 만큼 나아가며, 함께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깨달은 자신만의 마을만들기 철학을 이렇게 고백한다. “공동체의 본질은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고, 마을만들기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변화는 항상 변방에서 시작된다고 했다가. 영화 ‘1번가의 기적’에 나오는 대사처럼, 물만골 공동체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한 공동체는 이제 마을을 단지 ‘사는 곳’에서 ‘누리는 곳’으로 바꾸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학시절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이곳에 처음 왔었다. 그 날이 마침 마을에 잔치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몸가는대로 춤추며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회상한다. 그리고 부산에는 이제 이런 마을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다다랐고, 이곳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마을에는 정월대보름의 지신밟기, 달집놀이, 당산제나 5월 경로잔치 등 함께 어울리는 활동들이 있는데,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삶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예전에는 물만골이라는 마을 이름처럼 물이 많았지만, 최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해 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이를 위해 계곡의 물과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 마을 곳곳에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고 있다.



물만골 주민총회



물만골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물만골 당산제

또한 아늑한 마을의 경관을 보존하고,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 생태마을의 비전도 갖고 있다. 배추를 키우는 한 주민은 최근 일어난 배추파동 때 친지들에게 배추를 나눠주고 뿌듯해 한다는 일화도 곁들였다. 그 밖에도 주민들의 노령화에 맞추어 사회적 돌봄문화를 형성하고, 마을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경제시스템 구축,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금련산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자원 개발 등 다른 도시민들이 꿈이라고 여길만한 일들을 물만골 공동체 사람들은 다가올 현실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물만골 공동체의 역사에 어찌 가슴 뛰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겠는가? 공동체가 걸어온 길에서

때로는 주민들끼리 갈라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활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또 모든 것을 합의에 의해 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길어지는 논쟁 속에 지치기도 하고, 이제 공동체의 1세대 주민들이 나이가 들면서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갈 후세대가 많지 않은 것도 고민거리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물만골 공동체는 ‘더하기’의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마을만들기는 100년 대계입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 빨리 무언가 이룰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힘을 모아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글 조철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